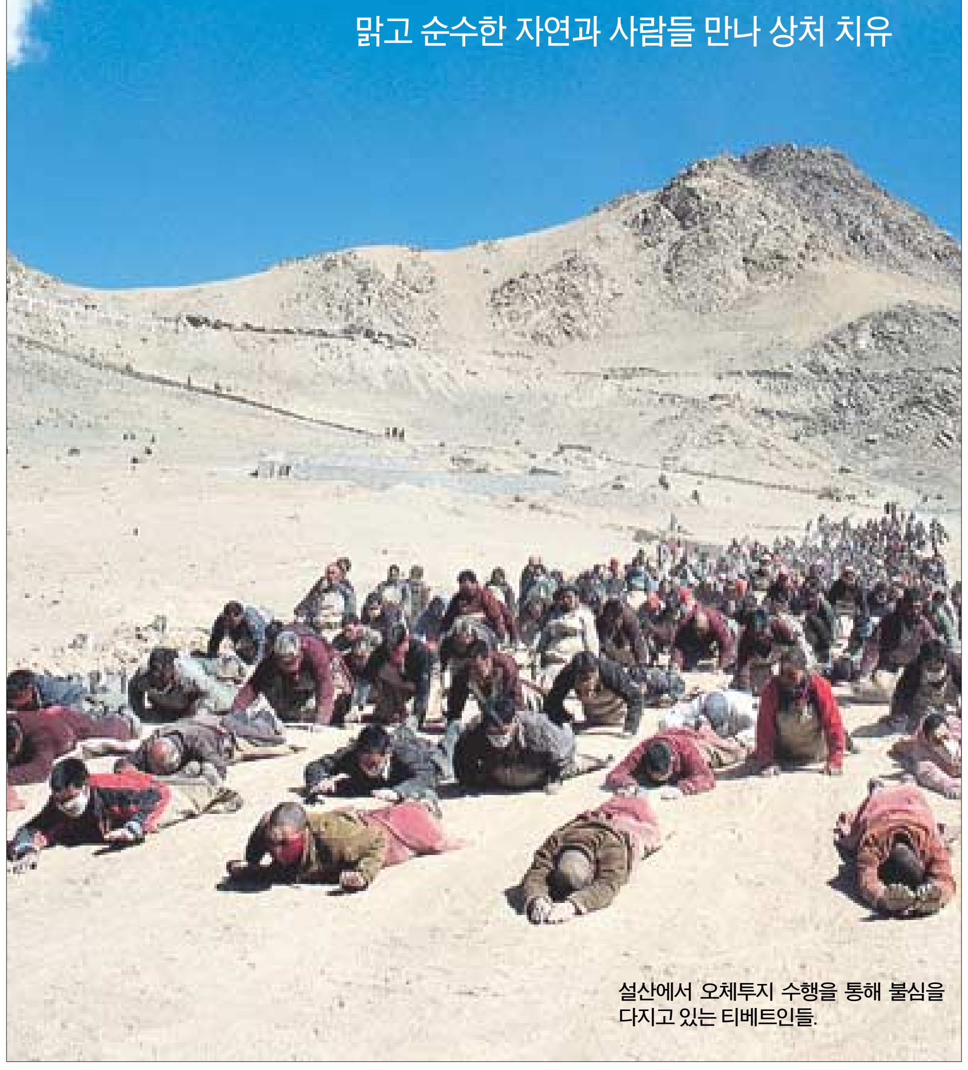
자연과 함께 소박한 삶 행복은 지금 여기에

실연 아픔으로 달라이 라마 찾아 떠난 여행 맑고 순수한 자연과 사람들 만나 상처 치유



설산에서 오체투지 수행을 통해 불심을 다지고 있는 티베트인들.

인생을 살다보면 어둠 속을 걷는 듯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특히 가슴을 후벼파는 실연의 상처를 받았다면 인생에 혼자 내버려진 좌절감으로 더더욱 그렇다. 이 책의 지은이 다카노 데루코도 실연의 아픔을 견딜 수 없어 죽어버린 것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달라이 라마를 알기 전까지는….

이 책은 아무리 여행 에세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솔직하다. 지은이가 달라이 라마를 1년 가까이 애타게 만나고 싶어했던 가장 큰 이유가 실연의 상처와 아픔을 달래준 <달라이 라마 365일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책 때문이란다.

실연의 아픔 속에서 세상의 모든 일상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을 때 그녀는 우연히 서점에서 이 책을 만났다. 그리고 지은이는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무작정 면회를 신청하고는 곧바로 티베트, 인도로 길을 떠난다.

지은이의 눈에 비친 티베트인들은 '인상 좋은 사람들의 보고(寶庫)'라고 할 만큼 순수하고 사람 본연의 온정이 흘러넘친다. 해발 3,000미터 이상의 고원지대에서 살아가며 티베트 불교를 믿는 그들은 자신만의 행복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모두들 당연하다고 믿는다.

처음 보는 사이라도 다정한 미소를 건넬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서 오래 살고 싶다'며 태연스레 말한다. 티베트 지방을 돌아보는 여정 곳곳에서 지은이는 평범한 티베트인들이 서로에게 나누는 사랑과 행복의 소중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 만나는 사람 한사람, 한사람마다에게서 살아있는 달라이 라마를 만나고 또 그들의 사랑과 행복을 부르는 삶을 엿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살아있는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나서는 지은이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삶에 관한 무수한 물음에 대한 해답과 가르침을 얻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달라이 라마를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티베트의 때묻지 않은 전통과 자연이 주는 감동, 티베트인들의 순수함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슴 속에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들을 보여 준다.

지은이의 티베트와 인도 다람살라 여행은 '새로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되긴 했지만, 여행의 시작부터 지은이만의 고집과 독특한 인생 바라보기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스무 살 때부터 세계 30여개국을 여행해 온 지은이는 2000년 <갠지스강에서 버터플라이>를 출간하면서 일본을 대표하는 오지여행가로 이름났다. 일본의 한비야로도 불리는 그녀는 일본에서 제법 잘나가는 여행작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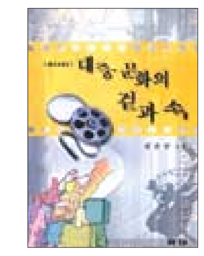
이런 그녀가 꿈에도 그리던 달라이 라마를 만난 것은 고작 20분. 하지만 스님다운 스님 탄파, 라다크의 의사 제완, 전혀 의사 같지 않은 제완의 삼촌 아무치, 고교 영어선생 카르마 등 지은이가 달라이 라마를 만나기 전 티베트와 인도 여행에서 알게 된 사람들 모두가 달라이 라마였다.

티베트의 순수한 전통과 자연 역시 지은이에겐 더없는 스승이었고 친구였다. 지은이가 말하려는 다람살라의 선물은 달라이 라마를 만나게 되는 하루를 그린 마지막 장과 달라이 라마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달라이 라마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온전히 마친 사진 속 지은이는 말한다. "어떤 순간에도 소박한 꿈과 희망을 지니며 오늘과 내일을 즐겁게 살고 싶다." 지은이는 결국 이 책에서 실연의 슬픔에 잠겨 있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들과 직접 부딪치며 '스스로의 인생을 바꾸는 힘'을 찾고자 한 것이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다람살라의 선물
다카노 데루코 지음 | 이수경 옮김
글로세움 펴냄 | 9천8백원

전문가 서평



대중문화의 겉과 속 2
강준만 지음 | 인물과 사상사 펴냄 | 9천원

언론학자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정치 · 사회 문제 비평가로 유명하지만, 대중문화에 관한 책도 여러 권 펴낸 학자이다. <대중문화의 겉과 속>은 그가 쓴 대중문화 이론서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는 책인데, 1994년 초판을 낸 뒤 1999년 전면개정판을 펴낸 바 있다. 이번 책은 먼저 나온 책의 속편이자 새로 나타난 대중문화 현상을 진단한 별도의 책이다. "대중문화의 변화 속도가 워낙 빨라 대중문화를 다룬 책이 5년 묵었다면 그건 역사책이다"라는 지은이의 믿음은 따로 책을 낸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 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부분은 우선 대중문화를 보다 냉철히 이해함에 있어 선행돼야할 이론적인 부분의 설명이 쉽게 서술돼 있다는 점이다. 피에르 부르디에, 어빙 고프만, 장 보들리야르와 미셸 푸코등 20세기 후반에서 현재를 진단한 철학자, 사회학자들의 이론을 적절하게 선정했다.

또한 핵심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하며, 그 언어의 기원 및 탄생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을 크게 두 개의 키워드로 분류해 낸다면 바로 소비와 인터넷 세계일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평가를 덧붙인다면 소비 문화 측면에는 살짝 좌파적인 시선

명품 티내기와 감추기의 심리학

을(모든 재화의 불평등적 분배구조를 개탄하는 식의, 부르디외의 자본적 기준을 따른다)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는 그것이 낳은 부작용과 앞으로 생겨날 위해적 요소에 대한 불안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지은이는 '전 사회의 대중문화화'라고 할 정도로 대중문화가 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런 확산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그가 꼽는 것이 소비문화와 사이버문화의 창궐이다. 소비문화는 과거 산업자본주의를 대체한 소비자본주의의 자식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문화의 특징을 개념화한 것이 이를테면, 어플루엔자(Affluenza)다. 풍요(Affluece)와 유행성 독감(Inffluenza)의 합성어인 어플루엔자는 풍요사회에 번진 유행성 소비열풍을 가리킨다.

이 신종 바이러스가 한국 땅에 상륙해 토착화한 것이 최근의 '명품 열풍'이다. 명품에 대한 열광은 사회학적으로 의미심장한 암시를 품고 있다.

일찍이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렌이 <유한계급론>에서 설파한 '베블렌 효과'를 '명품 열풍'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취향과 패션이 계급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상이 된 시대에 명품이야말로 이 표상으로 기능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다.

베블렌은 "비싸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은 아름답지 않다"고 말했는데, 유한계급이 '고가'의 사치품에 집착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주는 말이다.

명품에 눈이 먼 사람들의 심리를 티내기(구별짓기)라는 부르디외의 개념으로 풀어볼 수도 있다. 사위계급이라는 티를 냄으로써 하위계급과 자신을 구별짓는 데 유용한 물건이 바로 명품이다.

■김동훈(대중문화평론가 · 서일대 강사)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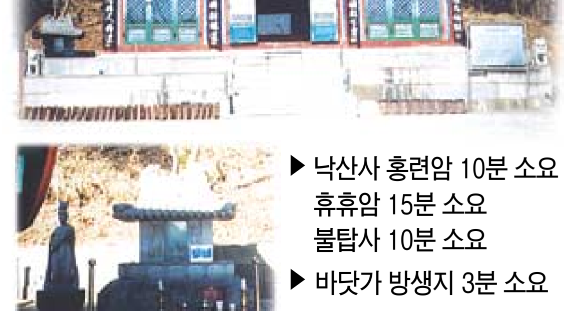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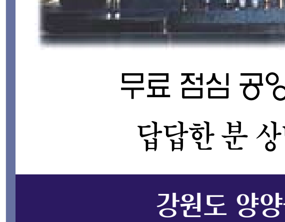
"치솟는 난방비용 이제 마음껏 쓰세요"
난방비의 획기적인 절감 및 균일난방 효과로
현재보다 따뜻하게 쓰면서도 난방비는
최저 20% 최고 50%까지 절감됩니다.
(최저 15% 법적보장)
저렴하고 간단한 설치로 한여름처럼 보낼 수 있습니다.
EPS밸브를 설치하게되면
● 내 방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난방온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침실 22℃, 거실 18℃, 공부방 20℃, 할머니방 26℃)
● 시공과 운전조작이 간편함
● 불필요한 보일러의 가동시간을 줄여 세대 내 모든 공간을 한여름처럼 난방을 하면서 난방비를 20~50%까지 절감시켜줍니다
● 아파트의 가격상승 및 선호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EPS밸브는 이런곳에 사용 됩니다.
● 난방비가 부담스러워 보조난로, 전기장판을 사용하면서도 쾌적한 난방효과가 없는 집(화재요인감소)
● 터무니 없는 난방비에 비해 추운집 (안방은 덥고 할머니 방은 추운 곳)
● 방마다 온도조절을 따로 하거나 별도의 난방시공을 해야 하는 집
● 심야전기용량이 부족한 집
● 한여름 처럼 난방을 하면서 난방비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집
※ 전국사찰, 개별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
(주) 이플러스세이버 TEL. 02)470-0400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靑미래 조청 1.2kg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山寺 약도라지 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1100g × 2병 = 18,000원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평상,벤치탁자

◆ 평 상 1500 × 820 × 400[mm] 가격:150,000 할인가:130,000
1800 × 1030 × 480[mm] 가격:220,000 할인가:190,000

◆ 벤치탁자 set 1500 × 1790 × 750[mm] 가격:420,000 할인가:370,000
갈라지거나 터짐이 전혀 없고 주기적 도색이나 관리가 필요 없어 반 영구적이며 특히 촉감이 부드럽고 비 온후 바로 앉을 수 있는 제품.
(옥상, 가든, 휴양림, 해수욕장, 알뜰, 공원 등등에서 사용 할 수 있는제품.)
지구산업 TEL:(063) 323-3010~1 FAX:(063) 323-3012
계좌번호:[농협]505055-56-005933 예금주:지구산업 곽영호
전화주문시 무료배송 지역대리점 모집

법비 내리는 곳! 부처님 광명이 충만한 곳!
동해사
어떤 소원도 이루는 곳. 기도영험 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소원 이루어 보세요


▶ 낙산사 홍련암 10분 소요
휴휴암 15분 소요
불탑사 10분 소요
▶ 바닷가 방생지 3분 소요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점심 공양 제공(예약에 한함)
답답한 분 상담은 혜명스님과...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 곳 동해사
033)672-2900,671-6079